

와인 소비는 늘었는데 생산량은 '뚝'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117>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공급이 일정해도 수요가 늘면 가격은 올라간다. 반대로 수요가 그대로라도 공급이 줄면 가격은 비싸진다.

만약 수요는 점점 많아지는데 공급은 감소한다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많이' 오른다. 경제학 강의가 아니다. 현재 와인시장의 상황이 이렇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쳐오면 와인 시장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경기 침체에 필수품이 아닌 와인은 수요가 줄면서 가격 역시 하락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오히려 와인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었다. 그게 '홈술(혼자+술)'이든 가족과의 '홈술(홈+home+술)'이든 말이다.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와인 수입 규모는 2억7999만 달러다. 지난해 상반기 1억3468만달러 대비 2배 넘게 급증하면서 작년 연간 수입액인 3억3007만달러에 근접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 국가에서도 와인 소비량이 늘었다. 반면 와인 생산량은 줄었다. 기후변화에 와인 생산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한두 해가 아니지만 올해는 유난하다.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농림부는 올해 와인 생산량이 3260만~3560만헥토티어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 대비 30% 가까이 급감해 수확량이 크게 줄었던 1977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3월엔 주요 와인 산지의 기온이 최고 26도까지 오르면서 포도나무 개화를 앞당기더니 이내 이례적인 한파로 기온이 영하로 푹 떨어지면서 다 얼려 버리고 말았다. 여기에 여름엔 폭우까지 겹쳤다.

이탈리아도 올해 와인 생산량이 작년보다 5~10% 줄어든 4400만~4700만헥토티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세계 와인 생산량 각각 1, 2위인 곳이다.

증가한 수요, 감소한 공급은 와인 가격의 끝없는 상승으로 나타났다.

런던 국제 와인거래소(Liv-ex·리벡스)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모든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와인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고급 와인 50종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리벡스 파인 와인 50 인덱스(Liv-ex Fine Wine 50 Index)는 지난달 말 기준 연초 이후 10.67% 상승했다.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전 세계 최고의 와인 100종의 가격 변동을 추적하는 리벡스 파인 와인 100 역시 10.01% 올랐다. 대중적인 와인까지 포함한 리벡스 1000도 8.23% 상승했다.

5년전 10만원에 살 수 있었던 부르그뉴 와인은 이제 17만원은 줘야 살 수 있게 됐다. 버건디 150 지수는 최근 5년간 75.38%나 급등했고, 샴페인 50 지수도 59.04% 상승했다.

'오늘이 가장 싸다'. 이제 사넬백과 강남 집값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닐지도 모른다. 와인도 그렇다. 와인을 잔뜩 사놓은 당신의 마음이 더 편해질 하루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부자가 된 나라, 불행한 국민들

8일 저녁 가족들과 소파에 참새처럼 나란히 앉아 tvN의 예능 프로그램 '유크이 온 더 블럭'을 시청했다. 처음엔 깔깔대고 웃었는데 프로그램이 끝나갈 때쯤 엄마, 아빠, 나, 동생 넷 다 꺾꺾대며 울었다. 고시원에 살던 20대 청년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연을 출연자로 나온 유희정 지사가 들려줬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상한 나라다. 전 세계 모든 가난한 나라가 꿈꾸는 부유한 국가가 됐는데도 국민 개개인을 찬찬히 뜯어 보면 행복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 '이상한 성공'은 빛나는 성취를 이뤘음에도 불행한 한국 사회의 아이러니를 파헤친다.

책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전 가난했던 나라는 지금도 가난하고, 부자였던 나라는 지금도 부자다. 그런데 한국만은 유일하게 가난을 탈출해 부자 나라가 됐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7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바뀐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하니 기적이란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다.

믿을 수 없는 성공에도 한국인들은 항상 불안에 시달린다. 저자는 '사회가 없는 세상'을 불행의 원인으로 꼽으며, 마거릿 대처 집권 기간의 영국을 예시로 든다.

사람들이 문제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대처는 복지국가를 축소



이상한 성공
유희정 지음/한겨레출판사

하고 국가의 힘을 이용해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려 했다. 그 결과 대저 정권 막바지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지니계수, 팔마비율)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성공은 사회란 없고 개인이 각자의 안락한 삶을 위해 행한 기적적인 노력들이 모아진 결과로 보인다"면서 "한국이 사회적 연대를 통해 서로 돕는 일에 인색해진 이유는 공적 복지의 확대 없이 성장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고 불평등을 낮췄던 놀라운 성공의 경험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안타깝게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사회는 과거와 같은 경제 성장의 기적을 일으키기 어려워졌다. 저자는 "우리의 비극은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 조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자"고 독자를 설득한다.

416쪽, 2만원.
/김현정 기자 hjk1@

이름이 법이 될 때

정혜진 지음/동녘

고유명사에서 보통명사가 된 이름들이 있다. 지난 2018년 겨울 한국발전기술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재가 분명했지만, 원청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청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면 원청이 책임질 것', 이 당연한 말을 법에 새기기 위해 김용균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세상에 내어줬다. 어떤 이름들은 산재 위험에서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구하는 법(태완이법)이, 어린이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민식이법)이 되기도 한다. 김용균, 태완이, 구하라, 민식이, 임세원, 사랑이, 김관홍... 책은 법이 된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써 내려간 르포르타주 에세이로, 우리가 타인의 이름에 얼마나 많은 빛을 지고 있는지 알려준다.

252쪽, 1만5000원.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

최인숙, 고희갑 지음/구름바다

기계에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세계는 지금 인간의 초라함을 목격하고 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20세기 자본의 논리에 따라 사람들은 땀 흘려 노동하고, 대가로 돈을 지불받았다. 하지만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게 됐다. 돈을 벌지 못하면 소비를 할 수 없게 돼 경제가 마비된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었을 때 국가가 나서서 무상의료를 펼치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을 풀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처참하게 죽었을 것이다. 책은 위기에 직면한 세계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지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상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다.

"훌륭한 생각은 처음에는 조롱받고 공격받지만 결국 받아들여진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기본소득 역시 받아들임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236쪽, 1만5000원.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고미숙 지음/북드라마

백수는 단순히 '노는 사람'이 아니다. 늘면서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이 스승이고, 인생이 학교인 청년 백수는 네 가지 기본기를 익혀야 한다고 책은 주장한다. 노동이 아닌 활동을 통해 자기 삶의 매니저가 되기, 고립이 아닌 공감으로 무장하기, 반복에 빠진 삶이 아닌 생성하는 삶을 위해 지혜의 파동에 접속하기가 바로 그것.

책은 고전평론가 고미숙이 오늘날 청년 백수의 삶과 18세기 조선 시대 연암 박지원의 청년 시기 삶과 사유를 교차



시키며 풀어낸 인문학적 백수론이다. "일하지 않아도 굶주리지 않고, 거기다 100세를 살 수 있다니, 그야말로 인류사의 축복이다. 그럼 그 기나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배우면 된다. 이것이 백수 시대에 백세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전략이다. 단언컨대,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다. 고로 백수는 미래다"고 저자는 말한다.

304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WSJ "바이든 행정부, 텍사스 낙태금지법 소송 준비"
▲ 日 야권 4당, 총선 앞두고 공동공약 손잡아
/사진 뉴시스

▲ 美연준 "美 경제 회복 속도 둔화...델타변이 영향"
▲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열살바도르, 혼란 지속



▲ 中 당국, 텐센트 등 온라인게임 업체 소환... 경고 조치
▲ 메르켈 총리, 퇴임 전 "나는 페미니스트" 공개 표명
/사진 뉴시스